

2006년 7월 9권 7호

..... 선을 베풀고 나누는 선나교회

내일의 꿈

7월은 들우 학생의 달

균형있고 건강한

내일교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31)

메세지

정신나간 선행 / 김성덕 목사 3

선교지 소식

배움과 훈련이 주는 도전 / 최승암 선교사 4

예친탐방

눈물겨운 우리 예친 / 전하준 집사 6

신앙간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 정혜숙 집사 8

웰빙 건강칼럼

이비인후과 영역의... / 안주선 집사 9

선나공동체를 찾아서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 인도희 집사 10

청년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 김종현 형제 12

축! 내일교회 홈피 새단장

/ 김가중 목사

이철승 목사의 가족칼럼

가정도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 이철승 목사 14

성경상식

성경적 웰빙 / 이춘수 전도사 15

책읽는 즐거움 / 가게사랑

예배 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오 전 7:00	영아부	오 전 9:30
주일2부예배	오 전 9:20	유치부	오 전 11:00
주일3부예배	오 전 11:10	유년부	오 전 11:00
주일4부예배	오 후 2:00	초등부	오 전 11:00
주일오회예배	오 후 2:00	중등부	오 전 11:00
수요기도회	오 후 7:30	고등부	오 전 11:00
새벽기도회	새 벽 5:00	청년2부	오 후 1:30
		청년3부	오 후 1:30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NAE-IL PRESBYTERIAN CHURCH

704-190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160-3
TEL. (053) 587-2121 ~4 FAX. (053) 587-2124
<http://www.naeil.or.kr>



당회장 김성덕 목사

정신 나간 선행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느니라.” (히13:16절)

십자가의 신앙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방이나 대적하는 사람보다 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무관심한 교인입니다. 무관심은 컴퓨터에도 안 나타나는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의 첫 발걸음은 바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신앙은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둘 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환란과 핍박 속에 처해있는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꼭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형편이 어려우면 자기 몸부터 먼저 사린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신앙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삶에 십자가의 정신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니까? 때로는 역동적인 생명으로 나타나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역경에 굴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 놓는 자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전역에 이런 슬로건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 너의 인생에 영동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한 여성이 롤게

이트에서 자동 매표기에서 산 7장의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한 장은 내 것이고 나머지 6장은 내 뒤에 오는 차를 위해 내가 대신 내어 주는 거요” 뒤에 따라오던 여섯 대의 차들에게 장수원은 말했습니다. “앞에 가는 어떤 여성이 당신들의 요금을 미리 내었소. 좋은 하루되시오” 이런 정신 나간 선행은 전 열병처럼 퍼져 나가 미국 전역에서 이런 선행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 계산적인 선행만 하지 이 여인같이 정신 나간 선행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때로는 정신 나간 친절로 나타나야 합니다.

몇 해 전 미국 집회 때 장로님이 아내 권사님과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런데 권사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여요. 어휴, 미국까지 와서 예수를 믿어도 헛 믿는구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얼굴은 평온해요. 그런데 옆에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정신 나간 할망구하고 같이 못 살겠다 해요. 사유인즉 얼마 전에 장로님하고 상의도 안하고 비행기 타고 서울 아들 집에 가서 자기 신장을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떼 주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할망구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 옆에 있던 본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속으로 “저도 부끄러워 할 말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영동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배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게 진정 나눠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7월은 불우학생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불우한 청소년들을 보살피며 정신 나간 선행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배움과 훈련이 주는 도전

어느덧 안식년을 마치고 우간다로 복귀할 때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는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 느껴지고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은 비교적 아쉬움보다는 보람, 후회보다는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움과 훈련이 주는 도전이야말로 선교사의 삶과 충전에서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한국, 미국 교회 등을 돌아보면서 서로 다른 장단점들이 있음을 봅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는 무지와 순수함이 특징입니다. 신앙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초월적이고 신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신앙과 삶이 비교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인 듯 보입니다. 신앙의 성경적 근거와 실천 원리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따라서 삶의 전반에 걸쳐 신앙적 덕목들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배여 있는 듯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복적 성향이 강하고 신앙과 삶의 이중성이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정

이 많고 의지가 투철하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도전과 동기 부여만 주어진다면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주의 일에 쏟는다.”는 식의 헌신은 한국 교회가 가진 독특한 잠재력인 듯합니다. 내적 신앙의 깊이가 더욱 여물어지고 외적인 헌신과 봉사의 달대함으로 이 시대를 밝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정말 옳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섬기는 것보다 역시 부담스럽고 편치 않습니다만, 사랑의 빛과 교제를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교제를 통해 우리 교회 곳곳에 순수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그 외에도 이모저모로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야말로 주의 이름을 빛내는 주의 사역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이 대접 받고 위로 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는 7월 19일 수요일, 3기 사역을 위해 우간다로 떠납니다.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떠돌이 여행을 마치고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는 설레임과 흥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익히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마주칠 위험과 불편, 어려움 등이 벌써 저의 마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이방인으로 남아야 하는 땅이 선교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교에 대한 막연한 낭만이 걸히고 난 후, 현실적으로 헤쳐가야 할 사역의 현장 한 가운데 서면 역시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국과 선교지가 모두 어색해 질 때, 그로 인한 상실감과 외로움이 크지만 그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이 더욱 애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시듯 이번 텀(term)도 우간다를 가슴에 품고자 합니다.

우간다를 향한 의욕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역의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작은 사역의 역경을 속에서도 의연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해 보면서, 잠시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갈 길을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결심해 봅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를 위해 여러 가지로 챙겨주신 김성덕 목사님, 세계선교위원회, 모든 일정을 점검해 주시고 세심하게 도와주신 권용해 목사님, 그리고 이런 저런 섬김을 베풀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3기 사역을 위해 출발하면서

최승암, 박주리 (예찬, 예원) 선교사

눈물겨운 우리 예친



112-1예친 전하준 집사

안녕하십니까? 112-1예친의 전하준 집사입니다. 이렇게 내일의 꿈을 통해 인사드리게 됨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친은 다른 예친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친원들이 작년 단체 전도 때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로 비둘기 아파트, 월성 주공아파트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초에 정운락 교구 목사님께서 예친을 한 번 결성해 보라고 권유하실 때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 이렇게 결성되어 진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었으며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친원 숫자도 많아져서 13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친에 오시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 자랑, 둘째는 병 자랑, 셋째는 과거 자랑입니다. 우리 예친의 말형이시며 50-60대들에게는 부모님 뻘이 되신 이경호(81세)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주위에 형제와 친척분들은 대부분 교인이신데 장손인 자기마저 교회 나간다면 조상은 누가 섬기시느냐며 80평생을 제사를 고집하시며 지조(?)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근래에 교회에 나오시고 난 후 지금의 심정을 여쭙어 보면 천국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늘 감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연장자이신 주상식(77세)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청렴함 그 자체이십니다. 주상식 어르신의 삼무(三無) 정신은 '무 정당', '무 보험', '무 종교' 였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아드님과 결혼할 신부되실 분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승낙하는 자리에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내 아들과 결혼하려면 종교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될 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부모님께 전화로 연락해서 어르신의 뜻과 자초지종을 말하고 신부 부모님으로부터도 딸을 교회에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고 합니다. 그러신 분이 얼마 전 18년

만에 며느리를 불러서 손자, 손녀와 함께 교회에 다녀도 좋다는 승낙을 하셨다고 연합예친 러브콜 모임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오는 9월이 되면 어르신이 교회에 나오신 지 1년이 됩니다. 그 때 며느님께 당신도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고백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연장자이신 전 원(74세)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늘 말씀이 없으시고 과묵하셔서 예친 모임에 참석하셔도 저녁 내내 말씀 한 마디 하지 않으시고 가실 때가 더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인자하시고 자상하셔서 한 번씩 웃으시는 미소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잘생긴 얼굴입니다.

네 번째 연장자이신 전유정(67세)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이시며 필체가 좋으셔서 아파트 내에서도 총무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격도 깔끔하셔서 늘 세련된 양복 차림으로 산뜻한 외모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교회 활동에도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다섯 번째 송태철(63세) 어르신은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뇌경색, 고혈압, 당뇨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는 하반신이 불편하셔서 보조기구를 사용하시

는데 걸겠다는 의욕이 대단 하셔서 열심히 아파트 주위를 돌면서 운동하고 계십니다. 부부에도 남달리 좋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이 외에도 이북에서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신 김동화 선생님, 박길남 형제, 박인수 형제님도 계십니다. 근래에 교회에 나오시는 이승로 형제님은 시신경이 죽어 가는 병으로 거의 실명 상태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전하준 집사, 윤영호, 송태철, 송동근, 주상식, 전유정, 이경호, 전 원, 김동하, 박인수, 이승로 성도)

에 처해 있습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0세의 젊은 피 송동근 형제와 윤영호 형제를 소개합니다. 윤영호 형제님은 비둘기 아파트 인근에서 채소가게를 하고 계시며, 송동근 형제님은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라는 힘든 시련을 견디셨습니다. 지금은 자기와 처지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로 준비 중입니다.

이토록 눈물겹도록 삶에 애착심을 가지는 우리 예친원들을 보고 섬기면서 늘 부족한 저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깨끗하게 섬겨 나가시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결눈질 하면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여러 교역자님과 성도님 우리 예친을 지켜 봐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친원들 사랑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424예친 정혜숙 집사

할렐루야! 저는 424 예친의 정혜숙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내일 교회로 온지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 은혜 한번 체험하지 못한 저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믿는 신랑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신랑을 따라 옮긴 교회는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주일이면 의무적으로 교회 안으로 발길을 들여놓았지만 말씀은 언제나 켓가에서 멎들 뿐이었고,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에 성도들은 언제나 제겐 어렵고 힘든 이웃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제 생활은 늘 염려와 불평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교회를 옮길만한 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서 지역의 교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힘들이지 않고 ‘내일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누가 내일교회로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내일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담임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 그리고 424 예친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부터 전에 느끼지 못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424 예친은 저에게는 작은 교회와도 같았습니다. 순장님을 비롯한 7명의 예친원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색깔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친모임을 통하여 저는 염려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

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로하고 때로는 같이 아파해주고 때로는 같이 눈물 흘려주는... 이렇게 좋은 예친원들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충격으로 얼마 후 친정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레 닥친 충격들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지만,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도사님, 그리고 예친원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으로 이 곳 ‘내일교회’로 보내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지난 봄부터 섬겨오던 ‘한국어 학교’와 ‘201 개발과정’은 저에게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8)의 말씀처럼 저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해주시는 정운탁 목사님과 전상일 전도사님, 201 개발과정의 김가중 목사님, 그리고 424 예친 식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

이비인후과 영역의 이물의 처치 및 주의사항



안주선 집사(안주선 이비인후과 원장)

본격적인 물놀이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더운 여름 철 시원한 물가를 찾아 수영을 즐기기도 하지만 물놀이 후 귀와 코(비강), 목에 들어간 물이나 이물질 등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물질은 때로는 응급을 요하기도 하며, 때로는 생명에 위협한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위별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이비인후과 영역의 이물질의 처치 및 주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귀-외이도 이물

유, 소아들은 귀속에 콩 종류나, 종이 조각, 작은 플라스틱 조각 등의 이물질을 집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구슬리 같이 표면이 매끈하고 둥근 것은 핀셋 등으로 집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물이 외이도 내로 한 층 더 깊숙이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나 혹은 고막에 손상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파리나 벌레와 같은 생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먼저 알콜이나 기름 등을 주입해서 생물을 죽인 후 제거해야 제거 시 2차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코-비내 이물

유아의 경우, 구슬이나 단추, 콩 종류, 플라스틱, 종이 등을 콧속에 넣으며 간혹 자신이 콧 속에 무엇을 넣었다고 호소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물질이 콧속에 들어간 채로 방치하면 아이들 코나 입속에서 고름 냄새가 나는 화농성 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코 앞으로 제거해야 하며 목 뒤로 삼킬 경우에는 폐나 기도로 흡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목-구강내 이물질, 연하 이물

소아에게는 동전, 플라스틱제, 장난감 부분품 등이 많으며 성인에게는 음식물에 관한 이물이 많습니다. 특히 유, 소아 등 언어소통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음식을 삼키지 못하거나 침을 흘리거나,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아기 때 습관적으로 귀와 코, 목에 이물질을 넣거나 삼키는 경우가 있으면 자주 재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과거력이 있으면 특히 더 주의를 요합니다.

우리 신체 중의 귀와 코 그리고 목은 아무런 이물질이 없으며 청결을 유지할 때 모든 바이러스나 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과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주님과 통한다면 사탄의 바이러스는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침투하더라도 곧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라”



326예친 안도희 집사

지긋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에도 온통 습기로 눅눅해지고 아이들도 비가 오는 게 끈적해서 싫다며 불멘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조금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의 모습에 어느덧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있는 저를 보게 되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 ‘그날 밤의 환상을 보는’ 금요기도회 찬양을 인도하는 저희 내일 찬양 선교단을 내일의 꿈에 소개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들 찬양을 사모하고 찬양에 뜨거운 은혜를 받고, 찬양에 목숨 거는(?) 귀하신 분들입니다. 가정과 직장생활로 바쁘고 몸이 피곤해도, 집이 멀어도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며 다들 금요일 밤이 되면 교회로 달려오십니다.



먼저 저희 선교단의 리더이신 권용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참으로 찬양을 위해 태어나

신 분 같습니다. 언제나 온 몸을 던져 찬양하시는 열정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저절로 은혜가 되고 도전을 받습니다. 늘 웃음으로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시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단의 대장되시는 한학근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키도 제일 크시며 찬양선교단의 초창기 멤버로서 지금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청년을 못지않게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봉 집사님입니다. 늘 부부가 함께 오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박은주 집사님은 신디사이저 반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전 집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한의사로서 또 찬양의 은사까지 받으시니 말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찬양대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신종철 집사님은 기타를 잘 치시고 찬양도 잘도 하십니다. 음악적 재능을 타고 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대결절로 인해 잠시 쉬고 계



십니다. 빨리 회복되셔서 다시 뵙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성통 집사님은 우리 선교단의 꽃미남 집사님 이십니다. 늘 밝고 부드러운 모습이 저절로 상대방까지도 기분 좋게 하십니다.

그리고 김영정 집사님입니다. 역시 김 집사님도 초창기 멤버로서 늘 한



결같이 섬기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는 네 아이의 엄마로서 교사로도 봉사하시고 그렇게 바쁘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게 섬기

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이 아프시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순희 집사님은 직장생활로 바쁘시지만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먼 곳에서도 달려오시는 귀한 집사님입니다.

또, 박영미 집사님은 선교단의 막내로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서



카메라맨에게 찍히신(?) 분입니다. 제가 봐도 참 은혜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또

저랑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부터 섬기게 된 안도희 집사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집도 멀지만 심령의 갈급함으로 인해 금요 철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하는 시간만큼은 제게 기쁨을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었고 아픈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게 주



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래방에서 세상노래를 좋아하며 마이크를 잡았던 제가 이제는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 저도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찬양이 끝나면 무릎이 아프고 부을 때도 있지만 주께서 그 시간 만큼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온전히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로 수고하시는 강성애 집사님, 신디사이저로 반주하는 김미소 자매, 드럼에 최상달 전도사님, 베이스기타에 이명일 형제, 보이지 않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엔지니어 최종진 집사님과 김선기 형제, 모두가 다 늘 자기 맡은 분야에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찬양선교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의 성도 여러분! 천국잔치가 열리는 금요 기도회에 오시지 않으시렵니까?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주님과 만남을 원하십니까?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해 주는 뜨거운 찬양이 있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남이 있으며,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의 환상을 보는’ 금요기도회로 내일의 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김종현 형제(2청년부 16기)

먼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내일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읽는 동시에 이번 청년부 여름 단기선교에 기도종보자로 세워 지심을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전체 단기선교팀의 집행부를 맡고 있는 청년2부 김종현 형제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어 올해도 청년2,3부가 중국과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으로 단기선교를 떠나며, 서부경남 산청지역으로 국내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8월 5일~19일까지, 스리랑카는 8월 8일~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은 8월 8일~19일까지입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선교수련회와 여름에 중국으로 단기선교를 떠나고 여러 선교단체를 통해 단기선교와 선교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번에 3개 지역으로 또한 자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됨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계로 향한 공동체, 장자적인 공동체로 이끌어주시려는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성도님들께 우리가 어디로 나가며, 왜 나아가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하여 지난 6월24일 토요일에는 일일찾집을 했었습니다. 일일찾집은 19기에 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더욱더 하나 되는 동기에를 느끼게 하였으며 기도로 준비함으로써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섬김으로 나가서 그 땅을 밟는 자나, 여기서 기도로 중보하는 자나 또는 물질로 후원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축제(권하정, 김종현), 사하(김주원, 손선옥, 김세인), 이란-쿠르드(김태원, 문초희, 김민수, 김시은), 크림타타르(김희동, 노경윤), 우루무치(정은희), 이집트(이언경)로 나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들지도 못한 생소한 민족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교단체를 통해 가지만 교회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관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들지도 보지도 못한 민족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들과 중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국내 전도여행을 떠나는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달려갈 아름다운 발들을 축복하시고 그로 인해 그 민족들과 지역이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을 경영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모든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축! 내일교회 홈페이지 새단장

김가중 목사 (기획 및 중국인 사역담당)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 드디어 우리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워진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및 개인 홈페이지 연동

원만한 사이트 운영을 위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제도는 필수입니다. 회원가입하실 때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회원 가입할 때 입력했던 개인 홈페이지, 싸이월드, 블로그 등이 화면상단에 표시되어 곧바로 개인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또한 글쓴이의 이름을 클릭하면 글쓴이의 간단한 정보와 개인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가능하여 교회홈페이지도 보고, 회원들 개인홈페이지도 방문해 보고, 또 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설교방송

은혜가 넘치는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동영상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부흥회나 세미나 등의 설교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3. 기사체형 게시판 - 역동적인 교회의 움직임을 한 눈에

기사체형 게시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인터넷 신문기사를 읽는 듯한 느낌의, 따끈따끈한 사진과 친절한 설명이 함께 달린 기사체형 게시판이 역동적인 우리교회의 움직임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 ACTS29 -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 될 우리교회의 핵심가치들을 취재한 게시판입니다.

○ 내일뉴스 - 우리교회에서 진행된 각종 행사에 대한 현장 취재 기사입니다.

○ 선나봉사대 - 선나봉사대의 활동상황과 일정 등을 소개합니다.

○ 발바닥사건의 주인공 - 우리교회의 각종 선교관련 소식들을 모았습니다.

4. 새가족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본 얼굴들 교회에서 다시 보면 훨씬 더 정감이 넘칠 것입니다.

5. 회원 간의 쪽지 기능 (구축중)

회원 간의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6. 내일클럽

회원 간의 인터넷 동호회 모임인 '내일클럽' 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일클럽을 통하여 예찬끼리 또는 각 부서들, 개발과정 동기 등이 클럽을 만들어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도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이철승 교육목사(청년1부 교역자)



요즘 주택에 대한 화두는 단연 ‘리모델링’ (remodeling)입니다. 오래 된 집을 새롭게 단장하기도 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하는 사람도 리모델링을 합니다. 아파트 거실과 베란다 사이를 없애고 아이들의 방 쪽에 있는 베란다도 확장하여 아이들에게 맞는 용도와 취향에 맞게 수리합니다. 조명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 부엌도 아내가 원하는 색깔과 자재와 모양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모델링은 건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정의 소프트웨어(software)라 할 수 있는 부부 사이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서 한 10년 쯤 살다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고, 싸우다가 변화가 없게 되면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포기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집안의 산더미 같이 쌓인 가사의 일을 도와주던 남편이 이제는 손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양말을 가지런히 벗어 놓고 아내의 어깨도 주물러 주던 남편이 이제는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 따뜻하게 맞아주던 아내가 남편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남편을 향해 안타까움과 애정을 가진 아름다운 시선이 어느덧 독기를 뿜게 됩니다. 이처럼 초기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관심이 없어져가고 있다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리모델링은 묶은 찌꺼기를 없애주며, 부부의 삶에 활력소가 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해야 할까요?

우선 가정에서 표현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아내에게 ‘비난하거나, 경멸한 말을 하거

나, 혹은 “음식 맛이 짜다, 싱겁다” 라고 불평하는 남편은 “그런 대로 먹을 만해” 혹은 “너무 맛있어!” 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 결국 네 잘못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에게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었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들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매우 미숙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합리화 하지 말고 밖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아가서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1:15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둘째, 행동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양말 같은 빨랫감들을 너저분하게 바닥에 늘어놓는 나쁜 습관이나 아내를 화나게 하는 일은 바꾸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TV를 시청하는 것이나, 휴일 내내 잠만 자는 등의 행위도 가정을 위해 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여름에 부부가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같이 즐기는 오락이나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은 지혜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셋째, 상황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결혼 후 가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내가 직업을 갖게 되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서 옛날의 것만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것만 고집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서로를 위한 나눔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리모델링은 부부 행복지수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성경 상식

[성경적 웰빙(Well-being)]

이춘수 전도사



성경을 읽다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이나 모르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속의 모르는 상황과 단어들에 대한 풀이를 통해 성경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그 의미에 대해 알 수 있게 돕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역자나 내일의 꿈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웰빙(well-being)이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인 선진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산업으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평온과 안정을 추구하는 여유로운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웰빙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웰빙 음식에 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웰빙 음식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제 웰빙 문화는 우리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 음식과 관련해서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은 악대, 사반, 토끼, 돼지와 같은 들짐승들이 있고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없는 장어, 미꾸라지 등을 금하셨으며 새 중에는 매, 올빼미, 부엉이를 금하셨습니다. 반면에 굵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것과 물고기 중에서

도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은 정결한 것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칼빈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합당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들은 먹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어서 구별하여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음식에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자신의 건강을 기준으로 웰빙 음식을 구별하는 현대인의 기준은 육체적인 것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웰빙 음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하며 구별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며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저 자 : 전병욱

♣출판사 : 규장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전제는 '신앙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얻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장하고, 악속을 붙들고 나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절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의 문제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풀어주는 해방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젊은 사자로 키워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변절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하며 묶인 것들을 풀어 해방시키는 해방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젊은 사자, 묶인 것을 푸는 젊은 사자 같은 패기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외대어학원

성서캠퍼스 593-0582(대)

가게사랑

변화되는 Toefl 에 따라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영어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체계적인 분류와 단계별 난이도에 따른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훌륭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내 유일의 학습법... 바로 확인 영어입니다.

확인 영어는 듣고 문제풀기 → 받아쓰기 → 말하기 → 동시 번역 → 동시 통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531예친 김현주a 집사 드림



달서구 이곡동 1250-19번지 승민빌딩 3층
(성서 E마트 맞은편)